

동방신기, 오리콘 차트 신기록 수립

동방신기가 일본 닛산 스타디움 라이브 DVD로 또 다시 오리콘 신기록을 수립했다.

동방신기는 지난 19일 일본에서 출시된 라이브 DVD '東方神起 LIVE TOUR ~Begin Again~ Special Edition in NISSAN STADIUM'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비긴 어게인~ 스페셜 에디션 인 닛산 스타디움)으로 발매 첫 주 오리콘 위클리 DVD 종합 차트 1위에 등극, 통산 10번째 1위를 차지하며 자신이 보유한 역대 해외 아티스트 오리콘 위클리 DVD 최다 1위 기록을 경신하며 최정상 인기를 확인시켰다.

더불어 동방신기는 DVD와 Blu-ray 판매량을 합산한 오리콘 위클리 종합 뮤직 영상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오리콘 위클리 2관왕에 올라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오리콘은 지난 27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 전설의 라이브 DVD가 1위, 해외 아티스트 역대 자체 기록을 경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동방신기가 오리콘 주간 DVD 랭킹에서 8작품연



속 및 통산 10작품째 1위를 차지하며, 자신들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운 '해외 아티스트 DVD 1위 작품수'를 또다시 경신했다."며 이번 기록을 상세히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DVD에는 지난 6월 일본 공연 사상 최초로 3일 동안 펼쳐진 닛산 스타디움 공연 중 마지막 날 실황이 담겨 있으며, 동방신기는 이 투어로 해외 가수 단일 투어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세워, 현지에서의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김희선, '종이꽃'으로 스크린 컴백

배우 김희선이 독립 영화 '종이꽃' (고훈 감독, 로드픽처스 제작)으로 15년 만에 스크린으로 컴백한다.

1993년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김희선은 SBS '공룡선생', KBS2 '목욕탕집 남자들', KBS2 '프로포즈', SBS '미스터Q', MBC '해바라기', SBS '토마토' 등 다수의 히트작을 남기며 1990년대 대표 미녀스타로 사랑 받았다.

이후 1997년 '패자부활전' (이광훈 감독) '자귀모' (99, 이광훈 감독) '카라' (99, 송해성 감독) '비천무' (00, 김영준 감독) '와니와 준하' (01, 김용균 감독) '화성으로 간 사나이' (03, 김정권 감독) 등을 통해 스크린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했고, 2005년에는 성룡이 주연을 맡은 중국 영화 '성룡의 신화' (당계례 감독), 2013년에는 '전국: 천하영웅의 시대' (13, 금침)를 통해 중국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김희선은 내년 상반기 '종이꽃'을 통해 스크린으로 컴백, 오랜만에 관객을 찾을 계획이다. 한



국 영화로는 '화성으로 간 사나이' 이후 15년 만의 스크린 복귀로 앞서 캐스팅된 안성기와 호흡을 맞출 계획이다. 무엇보다 김희선의 행보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블록버스터가 아닌 저예산 독립영화를 선택, 작품에 대한 소신있는 행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예정이다.

'종이꽃'은 제주 해녀의 삶을 다룬 독립 영화 '어멍'을 연출한 고훈 감독의 신작이다. 주·조연 캐스팅을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크랭크인 한다.

방탄소년단·트와이스, 올해를 빛낸 가수 1·2위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사진)과 걸그룹 트와이스가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2018년 올해를 빛낸 가수'와 '가요'에서 '올해를 빛낸 가수' 1·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갤럽은 "방탄소년단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음악계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며 "빌보드 200" 1위는 물론 연말 국내외 각종 차트와 시상식을 휩쓸고 있다"고 분석했다.

2위는 트와이스(11%)였다. 트와이스는 2016년부터 3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이유가 3위(10.2%), 홍진영이 4위(8.8%), 워너원이 5위(8.2%)를 기록했다.

갤럽은 "방탄소년단은 특히 10대 여성에게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고, 트와이스·레드벨벳·블랙핑크는 젊은 층에서 각축 양상을 보였다"며 "트와이스와 레드벨벳은 남성에게 더 인기가 많았지만, 블랙핑크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이돌 선호도 조사에선 방탄소년단 지민이 1위(12.8%)로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 블랙핑크 제니(12.2%), 아이유(11.9%), 레드벨벳 아이린(10.4%), 워너원 강다니엘(9.1%), 트와이스 나연(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7월 4~22일, 9월 7~27일, 11월 7~30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3~59세 남녀 4천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1.5% 포인트(95% 신뢰수준)다.

이 가운데 아이돌 선호도 조사는 만 13~29세 남녀 1천501명을 대상으로 설문했으며 표본오차는 ±2.5%포인트(95% 신뢰수준)다.

MY BABY. MY STYLE.
gemgem



Passionate about your baby?

SO ARE WE!



Clothing/ Toys/ Gear/ Room/ Feeding/ Gift/ Organic
www.egemgem.com T: 949.529.0715